

농민 영농의욕 사기높이자 - 농민은 보호, 사기는 진작 -

서 덕 길

함평군 농촌지도소

42조 농어촌 지원자금이 이제는 거시적으로 우리네 농촌에 차근 차근히 흘러들어 오는 것을 목격한다. 이제까지는 없었던 아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무창돈사'니 무슨 '무창계사'니 하는 최신 축사시설들이 눈에 띄고 도로변에 출장지도를 하다보면 몰라보게 비닐하우스 면적이 넓혀져 가는 것을 보고 마음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지원 대상농가에서 제외된 많은 소외 계층 농민들의 외롭고 허전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박서방은 정부에서 몇 천만원의 보조를 받는데 나는……" 등등.

이렇듯 자칫하다가는 42조 농어촌 지원자금이 결과적으로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심화시키며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은 애오라지 농심마저 퇴색시키며 급기야는 다정했던 이웃간의 인정이 위화감으로, 대정부 불평불만 요인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럴 때 일수록 당사자인 농민들과 관계당국은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크게 요청된다. 농민들의 영농의욕 연장선상에서 농민 사기진작 문제는 전 농업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선에서 과감하게 추진하되 절대로 지체하거나 실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깊어지고 있는 농민들의 부정적 사고나 좌절감, 소외의식, 패배주의, 냉소주의 창궐을 차단하고 긍정적 생산적, 우리 본래의 원초적 농심으로 하루속히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실제 영농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를 위한 폭넓은 지원사업이 공명정대하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금전적 지원시책 개발을 들 수 있다.

1. 일련의 농촌공과금의 획기적 경감조치이다. 농가의 의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통신요금 등을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30~50% 정도로 인하해 주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인하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2. 각종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조치하여야 한다. 당초의 공약의도와는 희석된 현행 농기계 50% 보조금 시책은 이제는 5백만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획기적인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 한도액도 2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과 동자금 구성도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 점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3. 농기계 면세유 대상기종의 범위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농기계에 농촌거주 농민들의 기동력인 아니 대체 노동력인 동력이륜차도 새로운 개념의 농기계로 간주하고 면세유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도시인들은 'my car'시대를 구가하는 판에 농촌거주 농민들은 농로에서 이륜차도 마음대로 탈 수 없다면 되겠는가.

4. 현재 농촌지도기관에서 오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는 완전 무상지원제도로 전환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일부 경미한 소모부품에 한해서 무상으로 정비수리를 해오고 있는 시·군이 일반적이다. 노구에 과대한 농기계를 끌고 수리장소에 집결하는 자체도 큰 부담이지만 산간 오지에서 부품대금을 일시에 즉석 지불하는 것이 큰 문제이며 촌노들의 고충사항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농촌에 기거하는 (고향농촌을 찾아오는) 농업인들이 예전의 농심으로 돌아와 자궁심

으로 고향 농촌을 지키며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외적 간접지원도 주도면밀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1. 농촌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공가(주로 이농가옥)의 합리적 처리방안 수립이다. 현실적으로 농촌공가의 증가일로와 그의 흉물화는 농촌풍경 및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전통적 농촌전원 풍경과 문화를 소멸시키고 미구에는 '유령촌'으로 전락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같은 맥락에서 산재된 폐농기계 방치상태는 환경공해 뿐만아니라 국가 자원관리 차원에서 항구적 대안이 시급하게 강구 되어야 한다.

3. 농촌사회 간접자본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확충이다. 열악한 농촌노동력 (부녀화, 고령화 추세심화) 갱신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환경 (특히 마을안길, 회관 및 조경, 공동건조장, 공동작업장, 주차장 등) 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만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시판 농약의 품목간소화 및 '농약명칭 통일화'는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 의지가 있다면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농약 1품목에 2개 명칭씩(상품명) 붙는 것은 너무나 관행화 된 현실이며, 3개 명칭씩을 가진 품목이 14종, 4개 명칭씩이 8종, 심지어는 1개 품목에 5개명칭을 가진 품목도 3종이나 되니 이거야말로 지구촌 시대 '붕이 김선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농약업자(현재 12개 제품회사, 11개 원제합성회사)들이 당국목인(?)아래 수난기를 겪고 있는 애처로운 농민들을 설상가상으로 우롱하는 처사가 현실점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70년도 과학기술처(당시 김기형장관) 주관, 전국아이디어 공모논문 '농약범람의 문제점 소고'(전국1위 입선)에서 최초로 주장했고 '92년도에는 '국민제안'을 통하여, '94년도에는 중앙행정쇄신위원회 주관 지방순회 공청회 (광주 광역시청 회의실) 석상에서 강도높게 문제의 '농

약명칭 통일' 필요성과 당위성을 열변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결과는 현재까지 유감스럽게도 함흥차사이다 (별지 농약 여러명칭 범람실태 자료 참조)

5. 농용자재의 소형경량화 및 다양화의 실천이다. 예컨대, 농용비료 포대를 종래 25Kg 포장단위에서 20Kg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6. 실제 영농상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 각종 영농자재 가격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든 간에 현재 수준에서 과감하게 인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는 '가격파괴' '권위주의 파괴' 시대로서 모든 공산품, 생활필수품 등이 대세에 합류하고 있는데 유독 수난기의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용자재만 성역시 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당위성 차원에서도 공감할 수 없는 일이다.

7. 농촌노인 복지대책 차원에서 65세이상 농촌 노인들에게는 8, 10마력의 동력 경운기 조작성은 엄청난 무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험 천만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 농작업의 다양성, 기계조작의 편리성, 경제성면에서 뛰어난 '다목적 관리기' 보급지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대외적으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이나 불만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농민 자존심 살리기' 내지는 '5백만 농민위상 정립하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1. 우선은 농촌가계 안정 및 구매력 유지향상 측면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의 합리적 추진이다. 정부의 철학이 갖든 확고 부동한 정책 의지와 전국 농협의 가시적 심기일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개월씩을 피땀흘리고 묵돈을 투자한 농산물이 어느날 갑자기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폭락했을 때의 농민들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

<표 1> 농약 여러명칭 범람실태

용도	품목명	명칭수	상표명 / 제조회사
살충제	비티	5	슈리사이드/미성 비티사이드/전진 바이오비트/동방 비비킬/한농 비티/한정
	비피	4	빛사/경농 멀사리/한농 한그물/동양 비피/미성7
	부로피	4	아프로빛사/경농 아부로비피/전진 금자탑/영일 부로피/미성1
	카보	4	후라단/경농 큐라텔/한농 카보단/동양 카보/삼공5
	파프	3	엘산/삼공 씨디알/미성1 파프/동양2
	메프	3	스미치온/동방 호리치온/한농 메프/경농2
	다수진	3	다이하론/성보1 시니나/영일 다수진/제일2
	칼탑	3	파단/동양 쎄다/한농 칼탑/경농2
	모노포	3	아조드린/동방 뉴바크론/동양 모노포/전진5
	아사트	3	오트란/전진 울커니/미성 이시트/동양5
살균제	리누론	3	아파론/미성 아파룩스/동양 리누론/영일1
	트리졸	5	빔/동양 울드미/한농 백만석/성보 도열탄/한정 트리졸/영일 4
	베나솔	4	오리자/미성 더존/한농 비온디/동양 베나솔/삼공3
	프로파	4	스미렉스/동방 너도사/경농 팡이탄/한정 프로파/전진2
	아이비	4	기타진/경농 방글/영일 풍마내/전진 아이비/미성3
	농용신	4	아그렙트/경농 부라마이신/한농 케양신/미성 농용신/삼공4
	베노밀	4	벤레이트/동양 두루다/한농 다코스/경농 베노밀/미성5
	지오판	4	툽신엠/전진 톽네이트-엠/한농 바로너/경농 지오판/동방5-원예용
	지오판	4	코빈/전진 바로너/경농 지오판/한정-벼농사용
	만코지	3	다이센엠-45/경농 팬코젤/전진 만코지/영일6
	에디펜	3	회노산/한농 나도산/동양 에디펜/미성3
	가벤다	3	마이코/미성 해마지/경농 가벤다/전진6
	이소란트리졸	3	다수왕/한농 신통단/한정 이수란트라졸/한정
	다찌밀	3	다찌에이스/전진 다찌란/동양 다찌밀/성보
다찌가렌	3	에이원/한농 입고단/동양 다찌가렌/전진2	
타로닐	3	다코닐/경농 금비라/전진 타로닐/영일4	
제초제	글라신	5	근사미/한농 라운드엿/동양 한사리/경농 한정글라신/한정 글라신/삼공3
	부타	4	마세트/한농 메끄란/경농 마끼세/동양 부타/동양4

자료 : 농약공업협회, '95년도 농약사용 지침서

2. 농촌의 보건의료 및 문화시설 개선·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읍·면단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료진료소는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너무나 열악한 현실이다. 그리고 문화, 복지시설은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는 자세로 선진국으로 들어서려는 진지한 자세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애농, 애향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3. 농촌주민들의 행정민원 편의를 위하여 일

정 지역간에 행정서류버스체를 운영토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농촌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 교통시혜 측면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격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민 PR(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과 주민 참여의식 제고이다.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긍정적 차별화, 공론화로 기존의 운수업체나 기타 이해관계 업체와의 사소한 이해관계 시비나 논쟁 등은 사

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4. 지방화,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농업선진국 진입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관계 기관단체의 합리적 교통정리 및 기능제고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특히 농촌지도기관 소속 전국 8천여 지도사들을 '97년도까지 일괄 지방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나, 일부 언론보도는 '농촌지도원리'와 '농업, 농민, 농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한마디로 말해서 황당무계한 미봉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산업을 단순경제논리로 볼 수 없는 것 처럼, '농촌'이나 '농촌지도기관'도 단순 경제논리, 졸속 조직개편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오류는 국제조류로 보나 국가 백년대계 입장에서 볼 때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미래 지향적 긍정적 시각에서 볼 때 농촌 지도사업은 더욱 확대 보강돼야 하고 이 시대 농민들의 유일한 반력자인 '농촌지도사'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은 반드시 행정쇄신 차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돼야만 한다.

끝으로 '94년도 농업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 5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43%를 육박하고 있다. (농업인구는 11.6%로 급감추세) 농촌의 일부 밝은 면만 보는 편협한 목가적 시각은 마

치 눈앞에 나무는 보지 못하고 멀찌감치 숲만 관망하는 그야말로 안이하고도 무관심한 편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농민들의 인식과 발상이 대전환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단체, 국민모두가 여건 조성에 총력을 결집, 동참하도록 하는 풍토 조성이 아쉽다. 농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엄청난 긍정적 발전적 변화가 우리네 농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키는 농민들의 숭고한 농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보호되고 응분의 대접을 받아야 하며, 온 겨레의 고향인 우리 농촌은 자자손손 영원토록 보전되고 전승되어야만 한다.

바야흐로 세계화 지구촌시대에 5천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소중한 원초적 농경문화가 만약 실종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국제미아 신세로 전락될 것이며, 이럴 경우 가히 국토의 일부를 빼앗긴 것에 비견할 수 없을 것이다.

농업 그것은 자고로 외롭고 피곤하며 때로는 피로운 것, 그러나 기필코 우리 국민중에서 누군가는 맡아서 가꾸고 또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